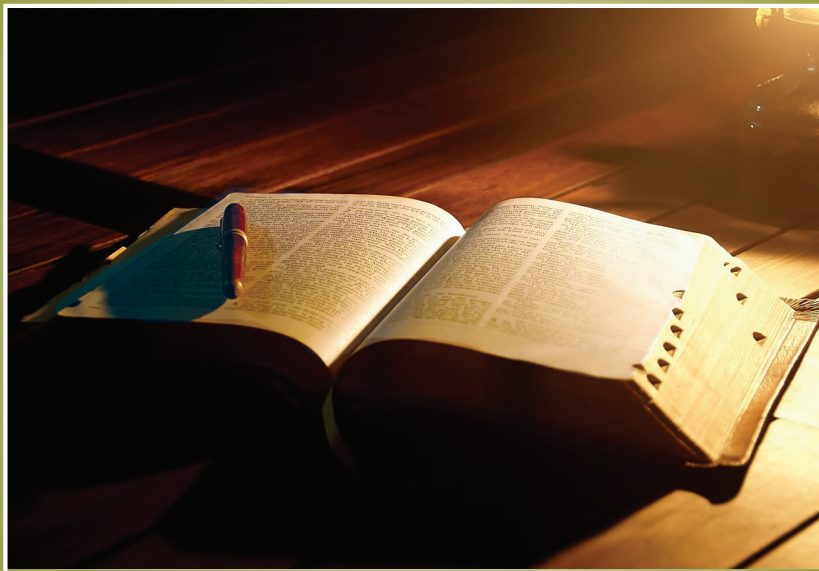


CREATION

TRUTH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NEWSLETTER

Volume 21 Number 06 **06** 2013



창세기를 통한 복음8

태초에 세셨던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나요?”

“말씀이요!”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히 11:3).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

다”(벧후 3:5)

성경의 어느 곳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모습은 창조 장면이 기록된 창세기 1장에서 가장 분명하게 등장한다. 창조하실 때마다 반복해서 “말씀하시되(이르시되)”라고 하시기 때문이다. 창세기 1장에서만 11번 등장한다.

그런데 “말씀”하면 떠오르는 분이 있다. 바로 예수님이다.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요 1:1)로 시작한다. 이어지는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으로 보아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1장 3절에는 “만물이 그(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예수님) 없이 된 것이 없다”고 하며 예수님께서 창조자이심을 분명히 했다. 골로새서도 예수님을 창조자로서 “만물이 예수님에게서(by Him)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by Him) 그를 위하여(for Him) 창조되었다”(1:16)로 표현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창조자라는 것은 성경 전체가 일관되게 유지하는 바이다.

이때 창세기 1장의 “말씀하시되”로 창조하시는 장면을 보며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려지지 않는가? 첫 절에서 시간과 공간과 지구를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 다음 절에서 수면에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빛을 창조할 때부터 말씀으로 등장하는 성자 하나님, 즉 창조 시작부터 삼위이신 하나님 모두가 등장하는 듯하다. 이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 과정을 아들과 함께 행하신 것을 보여준다. 히브리서에서는 그 모습을 “그 아들로 말미암아(through Him: 아들을 통해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말한다. 이와 같이 세분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하시는 장면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창 1:26) 하시며, 내(I)가 아닌 “우리(we)”라는 복수를 사용하신 것에서도 뒷받침된다.

사람도 말을 한다. 말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능력이며, 동물과 구분되는 가장 돋보이는 차이점 중에 하나다. 특히 인간이 구사하는 문법구조는 어떤 동물에서도 그 유사성을 찾기 못한다. 진화론적 사고를 갖고 언어의 기원을 연구하려는 자 세는 번번히 실패해 왔다. 실제로 언어를 보면 진화론적 변화를 보여주지 않는다. 언어학자들은 세대가 지남에 따라 문법구조가 점점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순해진다는 것에 동의한다. 이는 문헌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오늘날 언어가 변해가는 과정을 보더라도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다. 과거 문헌들은 현재 우리가 구사하는 언어보다 훨씬 복잡한 문법을 구사한다. 또한 이 시대의 언어의 변화를 보아도 문법적 구조는 점점 파괴되고 있다. 즉 이런 현상을 토대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옛날 사람들은 지금보다 복잡한 문법을 갖춘 더욱 다양한 언어를 구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변화는 언어가 점점 더 복잡해야 된다는 진화론적 사고와는 상반된다.

한편 이런 언어 변화는 성경적 기원과는 아주 잘 맞아 떨어진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처음



경고!

제조자는 이 과일을 먹을 경우 다음과 같은 현상이 있게 될 것을 보증합니다. 우울증, 관계 충동, 불면증, 죄책감, 어마어마한 아픔, 끔찍한 질병들, 고통, 폭력, 노화, 돌연변이, 변태, 환경 파괴.
효능은 각 사람에게 다르게 나타나지만 확실한 육체적·영적 죽음에 이를것입니다. 치료를 위해서는 제조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외: 에녹과 엘리야

부터 완벽하게 언어를 구사할 줄 알았다. 그러므로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처음부터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창 2:23)라고 완벽한 문법과 단어를 구사했다. 그리고 범죄 이후에 언어의 근본이신 하나님과 떨어지면서 언어까지 점점 어눌해진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부르신다(call)”라는 구절이 여러 번 등장한다.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의 이름을 스스로 짓고 계시는 것이다. 빛, 어둠, 궁창(하늘), 땅, 바다 등을 창조하실 때 각각의 이름을 부르셨다(call). 이런 유사한 모습은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자신이 하던 일들을 아담에게 맡기시는 장면에서도 등장한다.

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랴고 부르나(call)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call)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name)을 주니라”(창 2:19, 20).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아담이 이름 짓는 모습을 통해 그를 자신의 형상으로 인정하시고 확인하시는 장면 같지 않은가? 실제로 언제나 우리는 이름 짓기에 빠르다. 어떤 것을 발견만 해도 이름을 바로 짓는다. 이는 어떤 다른 존재도 갖고 있지 못한 신기한 버릇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 이후에도 인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자신의 말씀을 자신의 형상인 사람에게 맡기셨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과 우리의 역사를 잊어버릴 즈음에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말씀을 맡기셨다(롬 3:2). 그 이후 모세를 포함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기록하게 하셨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이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를 통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여러 번 언급된다(마 1:22; 4:14; 8:17; 12:17; 13:35; 21:4; 27:9; 눅 1:70; 행 13:29; 15:15).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인 선지자에게 맡기신 것이다.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셨다. 그러므로 태초부터 있던 이 생명의 말씀(요일 1:1)부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까지 더하거나 제거할 수 없는 것이다(계 22:18, 19). 사도 바울도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전 4:6)고 주의를 주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넘어갈 때 이를 교만이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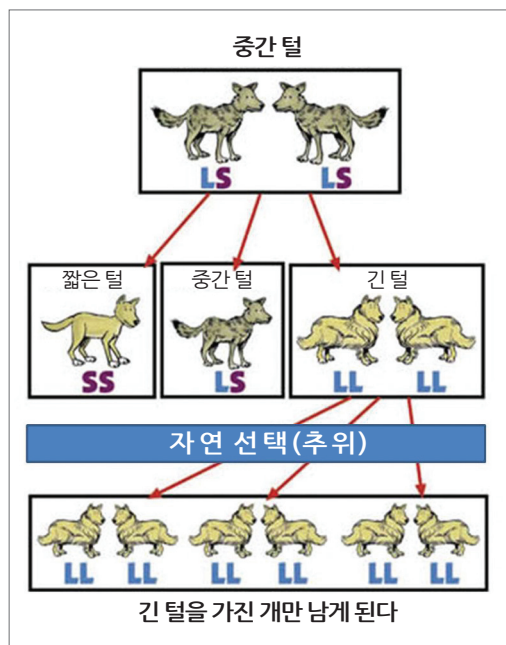
큰 그림에서 성경을 보면 말씀에 대하여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성을 갖고 유지된다. 말씀이신 창조주 예수님, 그 말씀의 형상이기에 창조되자마자 말했던 인간, 홍수 심판에서 구원 받은 노아가족,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된 바벨탑 사건, 이후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그 가운데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초대교회, 그리고 선교사들...

수십억 년 동안 진화와 멸종이 반복되며 인류까지 이르렀다는 진화론은 말씀이신 하나님뿐 아니라 창세기로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의 역사도 부정한다. 우리는 진화론적 사고에서 벗어나 진리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 받은 자라는 사실(고후 5:19) 때문에 감격할 수 있으며, 어려움 속에서도 주를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다(빌 1:14).



이재만 부회장
지질학, 과학교육학

항생제가 진화의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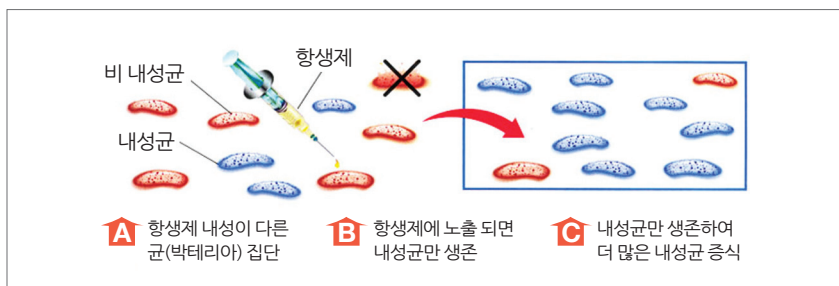
“박테리아의 항생제 내성(bacterial resistance to antibiotics) 발달은 진화의 직접적인 증거다.” 미국 고등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생물 교과서(Biology: The Dynamics of Life, Glencoe/McGraw Hill, 2006)에 들어 있는 거짓말이다. ‘자연선택을 통하여 진화가 이루어진다’고 주장을 해 놓고는 ‘자연선택이 사실이므로 진화가 사실이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논리를 펴고 있다. 자연선택은 사실이지만 자연선택이 진화로 연결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교과서는 교묘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의 과학으로 인정되는 지식이나 주장은 적어도 관찰과 실험과 반복실험이 이루어진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자연

선택이 진화의 동력이라는 주장은 관찰 된 적도 없고 실험으로 성공한 적도 없다. 단지 진화론자들의 소원일 뿐이다. 앞서 언급한 항생제 내성 발달에 대한 예는 자연선택의 예는 될 수 있지만 진화를 일으키는 힘은 아니다. 오히려 항생제 내성 발달에 대한 관찰과 실험 결과는 자연선택이 진화와는 무관함을 증명하고 있다.

박테리아는 크기가 보통 1000분의 1 mm 정도로 워낙 작기 때문에 겨우 몇 개만 있을 경우 그 존재를 확인하기 어렵다. 환자의 몸 속에나 실험실의 배양 접시에 항생제 내성이 강한 박테리아와 항생제 내성이 전혀 없는 박테리아들이 섞여 있다고 하자. 이런 박테리아 집단에 항생제를 투여하게 되면 항생제 내성이 없는 박테리아는 거의 다 죽게 되고 내성이 있는 박테리아만 살아 남아 그 숫자가 크게 증가하게 된다. 결국 항생제의 효과로 항생제 저항성 박테리아가 선택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이런 현상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를 ‘자연선택’이라 하고 인공적으로 일어나면 ‘인공선택’이라 한다.

박테리아의 항생제 내성은 두 가지 경우가 일반적이다. 한 가지는 원래부터 항생



제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다. 예를 들면 페니실린을 분해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페니실린 계열의 항생제에 내성을 보일 수 있다. 다른 한 가지는 돌연변이의 결과로 항생제 저항성을 보이는 경우다. 후자의 경우에는 항생제가 작용하는 부위에 돌연변이가 생겨 항생제가 작용하지 못하게 되어 항생제 내성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돌연변이가 발생하여 항생제 내성을 보이는 박테리아들은 대부분 세포의 다른 부분들이 함께 장애를 입기 때문에 정상적인 박테리아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런 이유로 항생제가 없을 경우에는 항생제 내성이 없는 박테리아들이 주종을 이루어 항생제 저항성이 있는 박테리아들은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항생제를 투여하면 경쟁하는 정상 박테리아들이 없어져 항생제 내성을 갖는 박테리아들만 번식하여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결국 항생제가 하는 일은 박테리아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다. 선택적으로 박테리아의 비율만을 바꿀 뿐이다. 항생제 저항성이 있던 박테리아는 여전히 항생제 저항성이 있는 박테리아로 남아 있고, 항생제 저항성이 없는 박테리아는 여전히 항생제 저항성이 없는 박테리아로 남아 있는 것이다. 자연선택이건 인공선택이건 박테리아 자체를 바꾸는 일은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항생제가 내성이 없는 박테리아를 내성이 있는 박테리아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는 불가능한 것이다.

자연선택에 의해 한 생물 집단의 모습은 변이에 의해 어느 정도 바뀔 수 있다. 예를 들면, 털이 긴 개, 털이 중간인 개, 그리고 털이 짧은 개들이 섞여 있는 집단이 살고 있는 곳이 한대지역으로 바뀐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털이 짧은 개는 도태되고 전체적인 모습이 털이 긴 개 집단으로 바뀔 것이다. 그러나 이 자연선택 자체는 털이 긴 개의 비율만 늘렸을 뿐이지 털이 짧은 개를 털이 긴 개로 바꾼 것이 아니다. 자연선택은 긴 털을 만드는 유전정보는 물론 그 어떤 유전정보도 만들어 낼 수 없기 때문에 진화의 동력이 될 수 없다.

진화론은 착각(변이를 소진화로 착각)에서 시작하여 속임수로 유지하고 있는 유물론적 자연사(natural history)이지 사실을 다루는 과학이 아니다. 정보의 법칙, 유전자 보존의 법칙, 세포 이론 등의 사실들은 “종류대로” 창조되었다는 성경 기록과 일치하고 있다.



최우성 박사
생리학



낙태: 진화론과의 연관성

진화론적인 세계관에는 절대적 도덕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가 없다. 만약 인류가 정말 우연한 산물이라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분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어떠한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 근거 또한 없을 것이다. 그러한 도덕관념이 없는 세계관에서는 야생의 동물들 사이에서의 약육강식 원리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그 세계관 아래 동물들이 그러는 것처럼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버리는 일도 당연한 것이 된다.

최근 이슈인 미국 낙태 시술의사 커밋 고스넬(Dr. Kermit Gosnell)의 재판은 낙태에 대한 윤리적 문제를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극명하게 보여준다. 고스넬은 그가 낙태 시술 실패로 살아남은 4명의 영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한 41세 여성을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그가 영아들을 살해한 방법은 이 여성을 살해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잔혹했다. 진화론자들을 포함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큰 충격에 휩싸인다. 그러나 만약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고스넬의 행동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일부 사람들은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단순히 주장한다. 그러면 왜 위법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어떤 행동이 그른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문제는 매우 간단하다. 인간의 생명은 귀하고 신성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이다. 우리가 고스넬의 죄와 같은 잔혹한 행동을 목격할 때 공포와 함께 소스라치게 놀라게 된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명이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집합의식(collective consciences: 한 사회 내에서 통일된 힘으로써 작용하는 공유된 신념과 연합된 도덕적 태도)은 그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에 동의한다. 이 순간 우리는 모두 인간의 생명이 신성하고 귀중한 것임에 동의하게 되는 것이며, 그 신성함이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된다. 인간의 생명은 신성하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창 1:27)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권위를 갖고 계신다. 이 사실이 고스넬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선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근거이다. 인간의 생명은 어떤 경우에도 신성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시 139:13~14)

진화론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인간의 가치를 무효하게 만든다. 이러한 점에서, 고스넬과 같은 사람들은 가장 약하고 무력한 사람들을 무참히 버리면서 그들의 진화론적인 신념을 실천한다.

예수님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마 7:18)라고 말씀하셨다. 나쁜 생각은 나쁜 결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데, 진화론이 바로 그런 나쁜 생각이다. 진화론은 무 도덕적인 관념의 씨앗을 오래전에 심었고 오늘날 인간 생명의 가치를 위협하는 나쁜 열매들을 맺고 있다.

출처 : Jake Hebert, Ph.D. / Michael Stamp(ICR 연구원, 편집인) / 번역 : 조희천

오늘 밤
뉴스는,
죄로
저주받은
세상에서
죄인들이
죄를 짓고...



창조과학 탐사여행 남침례교 국내선교부

지난 4월 15-17일 남침례교 국내선교부(회장 차경태 목사)에서 Death Valley를 중심으로 빙하시대 탐사여행을 마쳤습니다. 북미의 각 지역에서 특히 개척교회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36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지난 2007년 그랜드캐니언을 중심으로 탐사여행을 가진 이래로 두 번째입니다. 이번 탐사여행을 마치고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위한 탐사여행을 계획되었습니다. 오는 8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미나

예수전도단 직장인 DTS에서 4월 29일-5월3일 한 주간 집중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산호세 새소망 교회에서도 4월 13, 20일 각각 6시간씩 집중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밖에 Fairfax Korean Church, Fairfax, VA(EM 세미나, 4/20), 나성순 복음교회(4/24), 오렌지카운티 영락교회(4/26) 등에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초청해주신 단체에 감사드립니다.

신학생을 위한 제 2차 창조과학 집중 세미나

지난 해 1월 30-31일에 이어 5월 6-7일 신학생들을 위한 창조과학 집중 세미나가 파사데나의 사랑의빛선교교회에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사모님들 등 총 7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성경을 반대하는 진화론과 그 영향력을 함께 보고 느낄 수 있었고 다음 세대에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배우고 마음에 확



정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세미나 간증은 14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신학생을 위한 이 집중 세미나가 계속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소를 제공해 주신 사랑의빛선교교회에 감사드립니다.

남가주주님의교회 경로대학 샌디에고 창조박물관 견학

지난 4월 19일 남가주주님의교회(담임 한의준 목사) 경로대학 웅달샘 주최로 샌디에
고의 창조와 지구역사 박물관 견학이 있었습니다. 인생이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시
작되는 박물관을 통하여 복음이 무엇인지,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실인지 확인하고 생
각해 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후에는 바닷가를 돌아보는 즐거운 1일 소풍
이었습니다.





인간과 침팬지류의 유전정보는 얼마나 닮았는가?

과거에 진화론자들은 인간 진화를 증명하기 위해 인간과 침팬지 사이의 비슷하지 않은 DNA영역은 무시하고 비슷한 부분의 DNA만을 비교하였다. 많은 진화론 측 연구들은 게놈(전체 유전정보) 중에서 단백질 정보를 가지고 있는 특정 부분만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곤 하였다. 이렇게 얻은 DNA의 유사성은 다른 부분의 게놈을 사용하여 얻은 DNA 유사성보다 훨씬 높은(예, 98.4% 역자주)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었다.

더욱 최적화된 DNA 대조를 할 수 있는 최근의 연구에서는 놀랍게도 침팬지 유전정보는 인간의 유전정보와 단지 70%만 유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단백질 정보를 가지고 있는 유전자는 어떨까? 사람의 경우에 단백질 정보는 게놈(전체 유전정보)의 3퍼센트 이하인 것으로 생각된다. 나머지 97퍼센트의 게놈은 유전자가 일하는 것을 조절하거나 다른 양상의 염색체 기능에 관련되어 있다.

진화론자들은 두 종 모두에서 발견된 공통 유전자에 대해서만, 그 유전자들이 유사하다는 보고만 하고 있다. 이런 매우 편파적인 연구 때문에 우리는 인간과 유인원의 염색체가 정말 얼마나 비슷한지를 알 수가 없다. 비슷하지 않은 데이터는 버려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유인원 유전자 데이터 세트와 이미 알려진 인간 유전자 변형체의 포괄적 데이터베이스를 비교하는 광범위한 연구가 창조과학 연구소(ICR)에서 진행중이다.

과학자들은 어떻게 게놈에서 유전자의 정보만을 알아내는 걸까? 단백질 암호화 유전자가 활성화 될 때, ‘전사물(transcript)’ 혹은 ‘메신저RNA(mRNA)’라고 하는 유전자의 RNA복사본이 생산되는데, 세포가 단백질을 만들 때 사용된다. 특별한 기술을 사용해서 이 mRNA들을 찾아내 염기서열(DNA순서)을 알아내

게 된다. 이 mRNA의 염기서열을 다른 생물과 비교하면 유전자가 얼마나 비슷한지 측정할 수 있다.

완벽한 인간 유전자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거의 9백만에 가까운 서로 다른 인간 mRNA변형을 국립 생물학 정보센터(NCBI)의 공공 데이터베이스에서 내려받았다. 인간 게놈은 단지 22,000가지의 유전자를 가진 것으로 생각 되지만, 많은 유전자 변형이 대체 접합(alternative splicing)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한 가지 유전자에 대해 매우 많은 수의 변형이 존재한다. 비교하고자 하는 인간의 유전자 정보를 선택하고 이 정보와 비슷한 염기순서를 가진 데이터들을 침



팬지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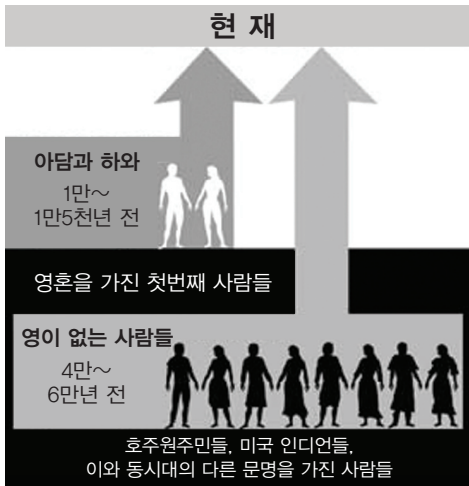
연구는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인류 기원에 대한 표준 진화모델에 도전하는 흥미로운 패턴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다. 처음엔 마치 모든 침팬지류들과 원숭이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중요한 부분들이 인간의 유전자와 매우 비슷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영장류들의 유전자에서는 사람의 유전자에서 발견되지 않는, 특별히 그들의 종류(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 등)만의 중요한 영역(정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관찰 통계 및 패턴의 유사성은 표준 다윈 진화론의 정설을 지지하지 않는다. 점점 드러나고 있는 유전정보의 패턴은 사람은 물론 각 영장류들이 “종류대로(after their kind)” 창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인간과 영장류의 생리학적 유사성과 전반적인 일반 해부학적 특징 때문에, DNA 염기서열이 공통적으로 사용된 것이다. 이것은 모든 유형의 설계 시스템의 논리적인 예측이다.

Jeffrey Tomkins, Ph.D., ICR 연구원
번역: 하성민

점진적 창조는 무엇이 문제인가?(5)



아담 이전의 영이 없는 사람(Hominid)들

진화론적인 방사성원소 연대측정 방법으로 인간을 닮은 화석들이 로스가 생각한 현대인(약 40,000 년)의 나이보다 더 오래 된 것으로 측정되자 그를 포함한 점진적 창조론자들은 이 원인들은 영도 없고 그러므로 구원도 없는 아담 이전의 피조물의 화석이라고 주장했다.

로스 박사는 이러한 진화론적 연대측정 방법을 수용하며 방어하기도 한다. 만약 인류(노아의 후손들)의 증거물들이 약 4만 년

(예를 들면 네안 데르탈인) 이전으로 진화론적 연대가 주어진다면, 그는 그 인류를 성경이 언급하지도 않는 영이 없는 “사람”과 관계가 있다고 다시 정의해야 한다. 그렇지만 똑같은 연대측정 방법으로 호주 원주민은 적어도 60,000년 이전(어떤 사람들은 훨씬 더 오래되었다고 주장한다)이며, “해부학적으로 현대인”인 화석은 100,000년 이상 된 것으로 측정될 때도 있었다¹. 로스의 논리에 의하면 (호주 원주민을 포함하여) 어떤 것도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사도행전 17장 26절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라고 말한다. 지구 위에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들이다.

덧붙여 말하면, 당연히 화석기록은 그 생물들이 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영은 화석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로스(그를 추종하는 진화론자들도)가 아담 이전에 존재했다고 하는 피조물들이 예술과 훌륭한 기술을 가졌으며 많은 아담의 후손들이 해 왔던 방법으로 그들의 시체를 묻었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단지 수천년 전에 살았었던, 완전한 인간이며, 아담의 실제 후손이라고 믿을 아주 좋은 근거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창세기 홍수

점진적 창조의 신조 가운데 중요한 하나는 노아홍수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만 국한된 홍수라는 것이다. 그들은 세계에서 발견되는 지층과 화석은 성경적 홍수로 인한 것이 아니라 수십억 년의 진화론적 지구역사의 결과라는 것을 믿는다.

로스 박사는 종종 “우주적인” 혹은 “전 지구적”인 홍수를 믿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홍수가 전 지구를 덮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그는 창세기 7장의 본문은 홍수가 전 지구를 덮은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직접 그 구절을 읽어 보자.

19 물이 땅에 더욱 창일하매 천하에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21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22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23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또한 창세기 홍수가 단지 지역적이었다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많은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

- 왜 노아는 방주를 지어야만 했을까? 그는 근처의 다른 산으로 걸어가서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 왜 하나님은 동물들이 죽음을 피하도록 방주로 보냈을까?

- 왜 방주는 육지 동물이 각기 종류대로 탈만큼 그렇게 컸을까? 만약 메소포타미아의 동물들만 났다면 방주는 훨씬 작았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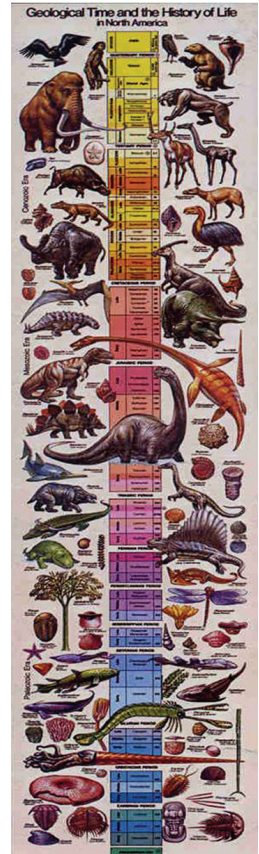
- 왜 새들을 방주에 태웠을까? 이들은 쉽게 근처의 산들로 날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 어떻게 물들이 산들 위에 15 규빗(8m) 이나 오를 수 있을까? 물은 제 위치를 찾아간다. 물이 세계 다른 곳에 있는 산들에 도달하지 않고 어느 지역 산들 위만 덮을 수 없었을 것이다.

- 그 지역에 살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은 홍수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했을 것이다.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오게 될 모든 사람을 향한 심판이 노아의 날에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것과 같다고 그리스도께서 한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노아의 날에 부분적인 심판은 오게 될 심판도 부분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 하나님은 노아홍수와 같은 홍수를 다시 보내지 않겠다는 그의 약속을 계속 깨뜨려 온 것이다.

1. White, T., et. al., *Pleistocene Homo sapiens from Middle Awash, Ethiopia*, *Nature* 423:742-747, June 12, 2003.



진화론적 지구 역사



신학생을 위한 제 2차 창조과학 집중 세미나

5/6-7 / 2013

창조과학회의 세미나는 단순한 과학 세미나가 아니라 성경적 세계관의 변화를 일으키는 너무나 중요한 기회였음을 고백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진화론적 사고가 너무나 깊게 자리 잡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그 자리에 성경을 온전히 세워야 다음 세대에 진정한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 윤영준 목사

이번 창조과학 집중 세미나를 통해 생각 외의 소중한 시간을 갖었습니다. 특히 성경에서의 빙하 시대와 공룡에 대한 궁금함 들이 있었는데, 소중한 성경적 관점에서의 답을 얻게 되어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기도하시고 가지고 계신 비전에 주님의 기쁨 부으심과 축복 하심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 정기양 선교사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확실함과 창조에 대한 확실함이 계속 남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준에 가지고 있던 창세기의 창조의 지식이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되고 개선하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 양희성 목사

좋은 강의를 듣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성경을 믿고 창조론을 믿지만 진화론자들의 주장을 반박 할, 그리고 변증할 방법을 잘 몰랐습니다. 덕분에 힘있게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용준 목사

모호한 것들을 분명하게 하는 시간들은 항상 은혜임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을, 말씀을 이해하고 바라보는데 귀한 도구가 되었네요. 최고이자 최후의 도구인 말씀을 이 시대의 무기로 삼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믿어지는 믿음을 확고히 하는데 이번 세미나는 열쇠가 되는 듯 했습니다. 귀한 일 하고 계시네요,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더욱 사실인 말씀을 알아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유일 목사

유익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창조에 대한 성경적, 과학적인 변증들을 실체적이고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교수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 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과 생각 속에 진화론의 거짓 된 내용이 많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지질시대표, 거짓된 증명 방법이론들, 타협된 기독교 내의 잘못된 이론들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만을 전하고 따름으로 이 시대와 교회들이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 이대학 선교사

그 동안 궁금했던 판 구조론이 노아홍수의 결과로 나타난 사실인 것을 배울 수 있

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 김경준 목사

성경이 '무오'하고, 모든 것을 진실로 믿고 있다고 생각 했는데, 강의를 들으며 나도 모르게 진화론이 내 사고 속에 포함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님, 전도사님, 신학 교수님들이 무지한 가운데 창조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자신 스스로도 잘못 알고 있는 부분, 잘못 가르치고 있었다는 사실에 부끄러웠다. 이런 강의를 통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을 깨닫게 되고,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되어 너무 감사한다. ...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며, 그분들도 이 은혜를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 유정민 사모

이 세미나에 참석 할 수 있게 하신(조성백 목사님 소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진화론이 거짓말인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성경이 진짜 인줄 알았지만 더욱 확실한 믿음으로 고등학생 아들 둘을 잘 가르치기 원합니다. 창조과학 선교회 사역을 하나님께서 더욱 축복 하시길 기도합니다. - 이정희 선교사

이번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서 개인적으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더 구체적으로 확신을 갖게 되어 기쁩니다. - 무명

1. 새로운 시작이 열렸다. 2. 다음 세대를 위한 꼭 필요한 세미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3. 성경으로 돌아가서 더 정확하게 세상을 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음을 느꼈다. 4. 나의 자녀들에게 꼭 이 내용을 소개해야겠다. - 박정수 사모

1. 눈을 뜨게 되었다. 2. 가슴이 뻐다. 3. 이 세미나, 이 시대의 다윗 같다. 4.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었다. 5. 오직 성경! 이었구나. - 김영철 목사

일목요연한 설명과 영상을 준비한 강사님들께 깊은 감사 드리며 더 많고 넓은 상대로 공급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성경을 통한 과학적 접근에 많은 지식과 힘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합니다. - John Kim 전도사

이집트 선교사입니다. 내 안에(사고) 자리잡고 있는 뿌리깊은 삶에 적용되는 진화론을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유럽, 미국, 현재 선교사를 많이 파송 하는 아시아 권의 대한민국이 차기, 아니 지금 위협받는 차례라는 생각이 생각이 '확' 깨게 했습니다. 내 주위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소리 없이 스며드는 사탄의 무서운 계락을 느끼게 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침묵'의 죄 값이 얼마나 무서운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가서 그 땅을 품고 사역하는 분들과 자녀 그 땅에서 힘들게 신앙을 지키는 자들에게도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배기영 사모

●편집되지 않은 간증은 Home page(www.hisark.com)의 "ACT 간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13년

6/2	주님의영광교회(이재만), CA
6/3-6	창조과학 탐사여행 (시애틀 형제교회), 이재만
6/8	순회선교단 미주지부 (최우성), CA
6/9	빌라델비아 교회 (이재만), CA
6/10-12	순복음 라스베이가스 교회 (이재만), CA
6/16	빌라델비아 교회 (이재만), CA
6/17-19	
6/20-22	빙하시대 탐사여행 (개인모집), 이재만
6/20-22	창조과학 탐사여행 (주님의빛교회), 최우성
6/23	남가주 해오름 교회 (김선옥), CA
6/24-27	빙하시대 탐사여행 (뉴욕 목회자 협의회), 최우성, 김선옥
6/24-27	창조과학 탐사여행 (뱅크버 성산교회), 이재만
6/28-7/4	빙하시대 탐사여행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 이재만
6/29-7/1	창조과학 탐사여행 (Korean Covenant Church of Marietta), E.M.김선옥
7/10	YM Diaspora (이재만), CA
7/11-13	빙하시대 탐사여행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 213-238-5791, 이주상), 이재만
7/15-17	창조과학 탐사여행 (16차 유학생, 신학생 213-381-1390), 이재만
7/18-21	창조과학 탐사여행 (동산고등학교 213-381-1390), 이재만
7/23-28	창조과학 탐사여행 (국제 기독교 학교 한국연맹), 이재만
7/23-26	창조과학 탐사여행 (나성 순복음 아시아 선교사, 최우성
7/29-8/3	빙하시대 탐사여행 (부산 영도팀), 이재만
8/4-8/8	창조과학 탐사여행 (지구촌교회), 이재만
8/5-7	창조과학 탐사여행 (커피브레이크) E.M. 김선옥
8/8-10	창조과학 탐사여행 (나성 순복음교회) E.M. 김선옥
8/8-11	창조과학 탐사여행 (YM Diaspora) 이재만
8/12-14	창조과학 탐사여행 (남침례교 목회자 자녀) E.M. 김선옥
8/12-18	창조과학 탐사여행 (서울드림교회) 이재만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 원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CT



창조과학선교회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P.O. Box 819, Norwalk, CA 90650
Office Address | 10529 Leeds St., Norwalk, CA 90650
Tel. 213-381-1390 www.HisArk.com / hisark@gmail.com